

작은 학교 아이들, 장편영화로 빛은 성장 기록



전교생이 참여한 이례적인 장편영화 한 편이 화순에서 순조롭게 제작 중이다. 작은 학교 아이들이 배우이자 스태프로 나서 완성해가는 영화는 지역 공동체의 힘을 더해 한 편의 성장서사로 펼쳐지고 있다.

화순 청풍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이 영화의 이름은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학생 영화로는 보기 드문 50분 내외의 장편영화다.

영화는 청풍초 학생이 된 치매 앓는 할머니와 그의 손녀, 학생들이 화순탄광 탐방을 앞두고 갈등과 해프닝을 겪는 내용이다. 이들이 탄광마을 탐방을 통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순 청풍초등학교 전교생 참여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제작 순항 박기복 감독 총괄...교육·창작 결합 지역 공동체, 도교육청과 협업도

화순탄광은 일제강점기부터 118년간 이어진 지역의 상징적 공간으로, 학생들은 그 역사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화합과 우정, 가족의 소중

함을 배워간다.

이번 작품은 화순 청풍초 전교생 23명이 출연하며, 교사들도 배우로 함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특별출연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제1회 전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에서 청풍초 어린이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영화 출연을 약속했고, 1년 뒤 이를 지키며 카리스마 넘치는 음악 선생님 역으로 연기에 나섰다. 그는 극 중 학생들의 따뜻한 소망을 이끄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인물로 등장한다.

촬영은 학교와 마을, 폐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순군과 지역민들의 협조 아래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괄 연출은 화순 출신 박기복 감독이 맡았다. 영화사 '무당벌레필름' 대표이자 할리우드 영화 학교 운영자인 박 감독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영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과 창작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영화 제작을 시도했다.

'원스톱 영화' 제작 방식을 통해 도교육청과 화순군이 연계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소통해 온 그는 지속적인 영화 제작만이 지역을 뛰어넘

어 글로벌과 경쟁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박 감독은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상상력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경험이 결국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화순에서의 영화 제작처럼 지역 공동체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영화 인재를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영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는 이달 말 촬영을 마친 뒤 학교와 화순군 시사회를 연다. 오는 12월 열리는 '제2회 전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비롯해 국내외 영화제에도 출품할 계획이다./최명진 기자

ACC재단, 미디어아트 유통 '성황'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11개 기관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창·제작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국 곳곳에 유통되며 호평을 받고 있다.

ACC재단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유통'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올해 초 전국 문화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협력 전시 기관 공모

를 시행해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 유통 작품은 협력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전시장 규모와 상황에 맞춰 작품을 다시 제작했다.

유통 작품들은 지난 5월부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비롯해 안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대구섬유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외벽, 서울 동대문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정읍시립미술관 등 전국 6개 기관에서 잇따라 전시되고 있다.

이어 15일 청송문화관광재단에서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와 '루네타스토포아' 전시를 개



정혜정작 '끝없음(VER.2)'

막한다. 또 23일에는 강릉시립미술관 솔움에서 ▲끝없음(VER.2)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하는 색들 ▲불과 얼음의 노래 ▲고사리 걸음 등 총 4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문화재단, '라이징 스타전' 참여작가 내일까지 공모

광주문화재단이 호남 최대 국제아트페어 '2025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5)' 특별 프로그램인 '라이징 스타전' 참여 작가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라이징 스타전'은 지역 유망 청년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기획

전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아트광주25 전시 현장 내 부스 지원과 도록 게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이거나 광주 소재 대학에서 미술 관련 전공을 한 만 19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이다. 회화·조각·판화·사진·설치·미디어아트·공예 등 시각

예술 전 장르를 포괄하며, 최종 선정 인원은 3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광주문화재단 또는 아트광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아트광주25 공식 이메일(artgwngju.officia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트광주25'는 오는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예술 관광 대표 행사로 추진된다. /최명진 기자

무더위 날릴 도심 속 '물과학체험장'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 25일부터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날릴 특별한 물놀이 체험장을 마련했다. 오는 25일부터 8월17일까지 과학관 야외 광장에서 운영되는 '물과학체험장'이다.

올해 물과학체험장은 120cm 깊이의 대형 풀장을 새롭게 설치하고 워터 발리볼,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3종, 물총 놀이장, 자석 낚시터 등 다양한 체험형 놀이시설을 마련해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20여 개의 물놀이 텐트를 활용한 대형 그늘막과 냉풍기, 선풍기를 갖춰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테이블과 의자, 잔디밭 돛자리 등을 활용한 휴식도 가능하다.

수질은 매일 확인해 수시로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물놀이 시설 수질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인명구조 및 간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포함해 평일 13명, 주말 16명의 운영



인력도 상주한다.

조혜민 연구원은 "여름 시즌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과학체험장의 인기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